방학, 난 '문자친구'와 논다

트렌드 Trend

광주 A중학교 2년생인 조모(14)양은 여름방학을 맞아 '문자 친구'들과 노느라고 바쁘다.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남겨 3명의 다른 지역 친구들을 사귀었다. 일상적인 문자를 주고 받지만, 최근에는 '폭염'이 주요 대화 내용이다.

'여긴 현재 34도, 거긴?' '여기도 33도 푹푹 찜'

"이성 친구 사귀기 쉽다"
청소년 새 소통코드 '붐'
'이상한 전화' 등 부작용도

◇청소년의 문화코드 '문자 친구'=인터넷 채팅을 통해 친구들을 만났던 청소년들은 이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나눈다. 최근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문자 친구를 구한다는 청소년들의 글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문자 친구를 찾는 학생들의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문자 메시지가 청소년들의 새로운 소통방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심심해서'라는 정도를 넘어서, 잠시라도 쉬지 않고 친구들과 소통하려는 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가 진화하면서 짧은 문자 서비스 외에 동영상·이모티콘·배경화면 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몰이의 배경이다.

무엇보다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점은 '문자 친구'의 장점. 특히 이성에 예민한 사춘기 시절, 이성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도 이를 노리고 청소년들이 문자 메시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요금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부작용도 커=인터넷에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는 특성상 흑심을 품고 있는 이른바 '변태'들의 전화가 어린 학생들에게 자주 걸려오고 있다. '문자 친구'에 빠지면서 학교 친구들과 멀어져 교우관계가 삐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특히 휴대전화를 통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알'이 새로운 갈취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들 대부분 부모가 정해놓은 정액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이 떨어질 경우에 다른 친구들에게 '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월 1만6천원짜리 정액제인 KTF 서비스의 경우 한 달에 쓸 수 있는 '알' 분량은 2천200개. 문자메시지 1건당 2개의 '알'이 소요됨에 따라 1천100건의 문자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문자 친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중간에 '알'이 바닥나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부모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무료환승 거부땐 형사고발"

광주시 "시내버스노조 극단 선택 자제를"

광주시는 '시내버스노동조합'(의장 장현곤)이 무료 환승객 승차 거부 〈본보 8일자 7면〉에 들어갈 경우, 형사고발·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8일 "무료환승제는 시내버스 승객을 되돌리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도입한 제도였다"면서 "도입 이후 버스 이용객이 연평균 6.6% 증가하는 등 큰 기여를 했는데도 노조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조는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보다는 시에 협상 중재를 요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며 "시도 적극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버스노동조합'은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근무 일수 축소 ▲기본급 10.1% 인상 ▲체불임금 청산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거부하자, 오는 20일부터 무료 환승객 거부와 운행 중단(9월 1일) 등 단계적 투쟁방침을 천명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말복 더위속 한때 소나기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불볕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 9일 광주·전남은 구름이 적고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날씨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말복(末伏)인 이날 오후에는 지표면이 가열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에 따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린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예상강우량은 5~30㎜.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일교차가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9~13일까지는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큰 '백중(百中)사리' 기간이니 해안 저지대 주민들은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최대 전력수요 하루 두번 경신

무더위로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하루 동안 최대 전력수요가 두번이나 경신됐다.

한국전력은 최대 전력수요가 8일 낮 12시 5천589만1천kW에 달해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달 14일의 5천526만kW를 넘어선데 이어 오후 3시 5천616만9천kW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하지만 전력 공급 예비율은 11.9%에 달해 전력 공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전은 올해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이달 2~3째주에 5천808만kW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용산생활체육공원 유료화 강행

동구청,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동구청이 주민들의 반발 〈본보 8월1일 6면〉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장한 용산생활체육공원 유료화를 강행키로 했다.

동구청은 8일 용산동 용산생활체육공원 잔디구장 유료화를 골자로 한 '광주시 동구 용산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청은 이 조례안(제3조)에서 '(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 체육공원을 위탁운영할 방침임을 밝혔다.

조례안(제8조 등)은 또 '잔디구장의 사용료를 1시간 1만5천원으로 하고, 1일 3회 6시간 이내로 이용을 제한한다'고 규정, 논란이 됐던 축구장의 이용료를 계속 징수할 것임을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동구의회 정례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확정된다.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은 오는 24일까지 동구청에 찬·반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동구청은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달 8일 5천730평의 용산체육공원(축구장 규모=50×90m)을 개장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조선대 산악회, 히말라야 '시샤팡마' 오른다

개교 60주년 맞아 45일간의 도전

시샤팡마 서면

조선대(총장 김주훈)는 개교 60주년을 맞아 오는 15일 중국령 티베트고원의 시샤팡마(Shisha Pangma : 8,027m)에 원정대를 파견키로 하고 10일 대학 내 서석홀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조선대 산악회 선후배 5명으로 꾸려진 '2006 조선대 시샤팡마 원정대'는 오는 9월28일까지 45일동안 시샤팡마 남벽을 극지법과 알파인 스타일로 도전한다. 카투만두를 거쳐 오는 23일 베이스캠프(5,000m)를 설치한 뒤 6,400m(캠프1), 7,100m(캠프2), 7,400m(캠프3) 지점에 3개의 캠프를 구축, 다음달 중순 정상공격을 시도한다.

대원들은 신광철 원정대장(36·여수영일가스 대표)과 서상진(28·토목공학과4), 장정규(28·토목공학과4), 마수광(26·항공우주학과4), 고관섭(21·군사학부2)씨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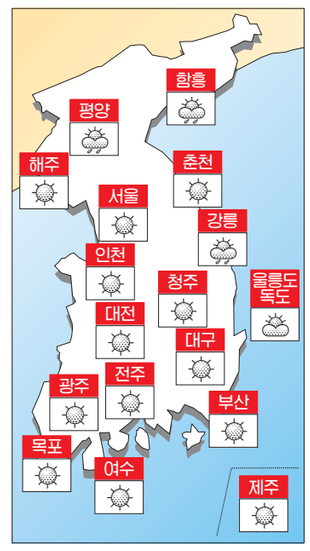
시샤팡마는 히말라야 8,000m급 14좌 가운데 높이는 가장 낮지만, 남벽의 경우 길이가 2천m에 이르는 60~70도 경사의 암설벽을 타고 올라야 해 등정이 결코 녹록치 않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소나기야 반갑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겠다.

8월 9일 (음 7월 16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조금	24~34℃
목 포	구름조금	25~33℃
여 수	구름조금	25~32℃
완 도	구름조금	24~33℃
구 례	구름조금	23~36℃
해 남	구름조금	23~34℃
장 흥	구름조금	23~34℃
고 흥	구름조금	23~34℃
순 천	구름조금	22~35℃
영 광	구름조금	24~34℃
진 도	구름조금	23~34℃
전 주	구름조금	24~34℃
남 원	구름조금	22~34℃
정 읍	구름조금	24~33℃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2:06 14:01 썰물 07:31 19:28
여 수 밀물 08:51 21:33 썰물 02:59 14:52

▲해뜸 05:47 ▲해짐 19:28 ▲달뜸 19:39 ▲달짐 05:0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날 씨						
최저/최고	24/32	23/32	24/32	24/33	24/32	24/32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 당직변호사(9일)
  주철수 226-2666
- 법무사회 법률상담(일)
  김명호 239-1809
-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상록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 사이버테러 (02)118
-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

교통사고 환자 17% '나일론 환자'

화순 입원환자 28%가 무단 외출·외박

손해보험협회 조사

교통사고 환자 10명 중 1명은 이른바 '나일론 환자'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는 12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2006 회계연도 1·4분기'(4~6월)에 전국 676개 병의원의 교통사고 입원 환자 3천592명을 점검한 결과, 무단으로 외출·외박한 환자의 비율이 17.2%(618명)였다고 8일 밝혔다. 야간에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주말의 병실 부재율이 21.5%로 주중 14.7%를 크게 웃돌았다.

도시별 부재율은 대전이 3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화순(28.5%) ▲천안(27.3%) ▲익산(22.2%) ▲서울(21.8%)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업계는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많을수록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의 입원율은 약 72%로 일본의 약 9%보다 8배 높다"며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는 사람과 병원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단 외출 또는 외박하는 환자나 이를 방치하는 병원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부재 환자를 방치하는 병원을 제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